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9.10)

1. 한일 관계 악화 관련¹⁾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스가(菅) 관방장관은 8일 TV아사히에 출연, 최근 한일관계 악화는 “모두 한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.” 라고 발언함.
- o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 입장을 재차 강조함.
- o 또한 “조약은 각국의 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구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며, 한국은 조약의 기본을 어기고 있다” 라고 하면서,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 판결 및 한국정부의 대응을 비판함(毎日新聞).

1) 「菅官房長官：「悪化、韓国に全責任」 菅氏、テレビで批判」 『毎日新聞』(2019. 9. 10).